

스포츠원 **SPORTS1**

2022 09 | VOL.75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MONTHLY MAGAZINE



CONTENTS



테니스의 새 역사를 만들다

2022 윈블던 14세부 남자 단식
초대 우승에 이어 유럽 주니어 대회 석권,
아시아테니스연맹 주니어 랭킹 1위...
올해 만 14세 조세혁 선수가 세운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테니스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조세혁 선수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SPORTS1

2022 09 | VOL.75

발행인 이기홍 회장

편집인 박춘섭 사무총장

발행처 대한체육회 홍보실

발행일 2022년 9월 20일

주소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전화 02.2144.8114

팩스 02.420.4233

홈페이지 www.sports.or.kr

등록번호 송파, 라 00052

기획·디자인 디자인메카 02.516.1910



- 본지는 한국도서접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

06



KSOC & SPECIAL

04 포토에세이

06 THEME TOPIC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비현실적 권고안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12 THEME REPORT

주중엔 학교 수업, 주말엔 경기
우리 아이들은 언제 쉬나요?



28

KSOC & SPORTS

- 18 **ZOOM IN ①**
역대 최다 선수단 참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엿보기
- 20 **ZOOM IN ②**
2022 스포츠진학·진로·취업박람회
'스스로(路)' 열려
- 24 **HERO OF GENERATION**
한국 테니스의 미래
테니스 선수 조세혁
- 28 **TECH INSIGHT**
역도, 기술로 힘을 폭발시킨다
- 32 **GLOBAL SPORTS PRISM**
우리나라 e스포츠 현황과
미래 스포츠 산업의 발전
- 34 **월드 스포츠7330**
신나고 즐거운 롤딩 롤딩 롤딩~♪
롤러스케이트 동호회 '롤딩(rolling)'
- 38 **학교야 체육하자!**
체육 교육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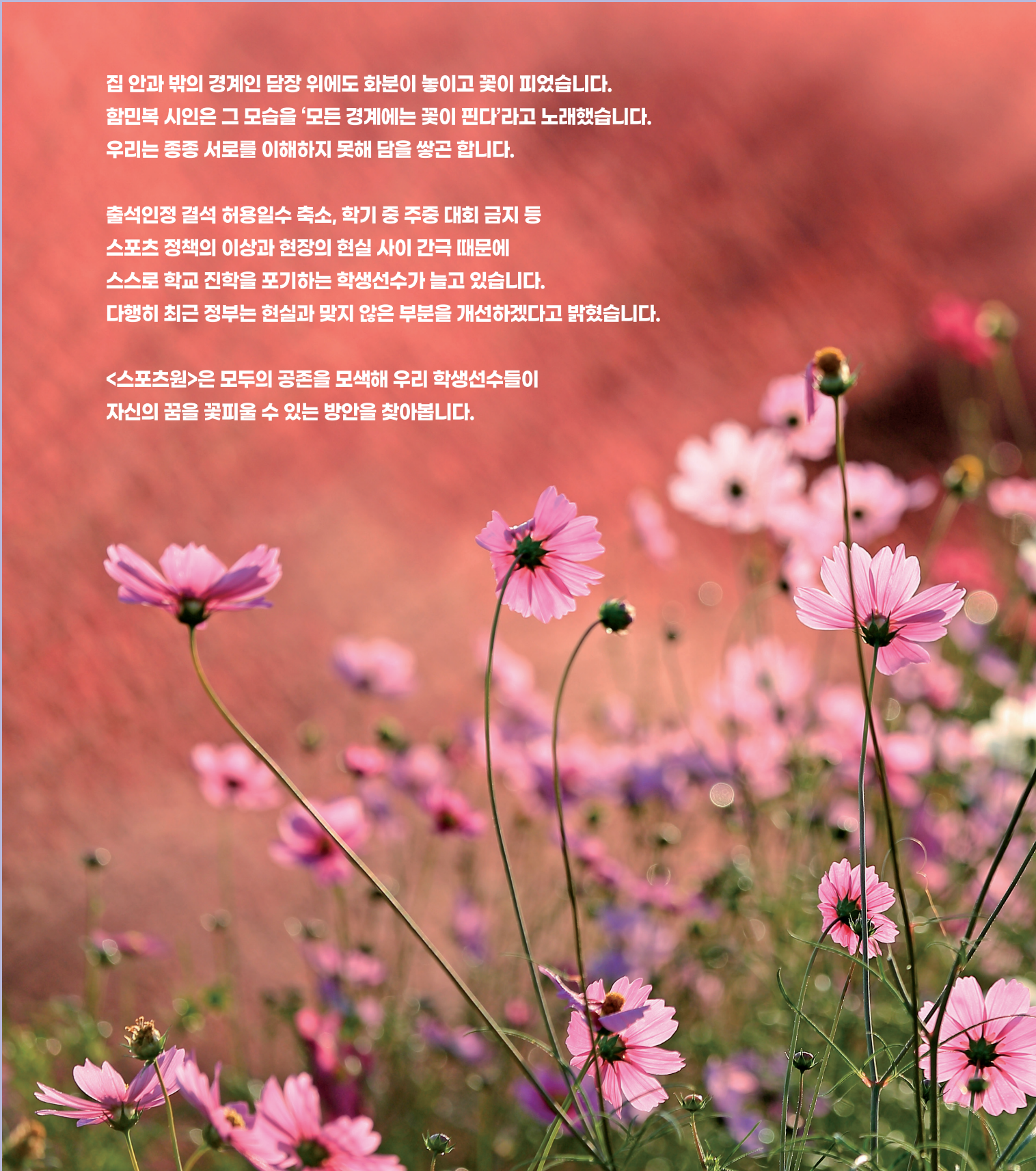
KSOC & TREND

- 42 **NEW NORMAL & SPORTS**
요즘 스포츠판,
팬덤 플랫폼에서 놀다
- 44 **SNS 라이브**
이거 놓치면 후회할걸!
대한체육회TV의 귀염뽀짝 열전
달리로그, 스포츠REC
- 46 **가볍게 스포츠**
살찌기 좋은 계절? 운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 운동 전 체크 사항
- 48 **가볍게 여행**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경마공원 나들이 어때요?
- 50 **KSOC 모의고사**
도전! 나도 Sporter
- 52 **KSOC NEWS**

집 안과 밖의 경계인 담장 위에도 화분이 놓이고 꽃이 피었습니다.
함민복 시인은 그 모습을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담을 쌓곤 합니다.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등
스포츠 정책의 이상과 현장의 현실 사이 간극 때문에
스스로 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선수가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원>은 모두의 공존을 모색해 우리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꽃피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니다.





글. 전영지 스포츠조선 스포츠팀 부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등 체육계 현장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현장 중심 제도 마련을 위해 개선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할지 함께 생각해본다.

“제2의 신유빈, 조세혁이 없도록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8월 29일 ‘지난 정부의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중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된 권고 등 3개 권고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6월 18일,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교 운동부 개선, 소년체전 개편 등에 대한 2차 권고안을 발표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현장소통 없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체육 정책에서 눈에 띄는 첫 변화다.

‘체육인이 바란다’ 포럼 등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대한체육회와 ‘운동선수의 꿈을 막는 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다. 내일의 손흥민, 김연아를 꿈꾸는 학생선수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까.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학생선수 권고안 현장에 맞게 개선”

2019년 1월 빙상 코치의 성폭력 사건 후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2019년 2월 시민단체, 인권전문가, 체육계, 학계 민간위원 15명과 5개 관련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전격 출범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1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총 7차에 걸친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포츠 인권, 모두를 위한 스포츠, 스포츠 복지 등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결과물도 내놴지만, 세상에 100% 정답은 없는 법이다. 특히 대한민국 전문체육의 인프라, 종목별 현장 특수성을 간과한 2차 권고안은 거센 반발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차 권고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을 문체부와 교육부에 권고했다.

학생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일수가 기존 초·중·고 각각 10일, 15일, 30일에서 올해 5일, 12일, 25일로 축소되고, 내년엔 초·중학교 0일, 고등학교 10일로 축소된다는 방침이 하달됐다. 스포츠의 꿈 하나만 보고 달려온 학생선수, 학부모들 등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공부하는 선수를 키우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일부 현장에선 진학 대신 자퇴를 부르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탁구의 신유빈, 김나영 등이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에 직행했고, 7월 월드컵 테니스 14세부 남자 단식 우승자인 조세혁 역시 “수업과 국제대회 참가를 병행하기 어려워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선수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권고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새 정부는 일부 권고안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문체부는 향후 전문가, 체육단체, 학계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어려워 진학을 포기한 신유빈, 조세혁 선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체육 정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선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다.
문제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
스포츠의 다양성을 고려해
종목별, 지역별, 수준별
세심한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대한체육회, 운동선수학부모연대 “적극 지지, 환영한다”

문체부의 개선안 마련 발표 직후 대한체육회, 학생선수, 학부모들이 적극 지지의 뜻을 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혁신위 권고 가운데 선수 인권 보호, 지도자 처우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이 보장된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다만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구조 개편, 대한체육회-KOC 분리 등의 권고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개선책 마련에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하면서 “문체부, 교육부와 함께 현장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800여 명의 학생선수 학부모로 구성된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 역시 스포츠 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 발표에 환영 입장을 전했다. 김창우 대표는 “학생선수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 입안 과정이 투명하고 현실성 있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학생선수 정책,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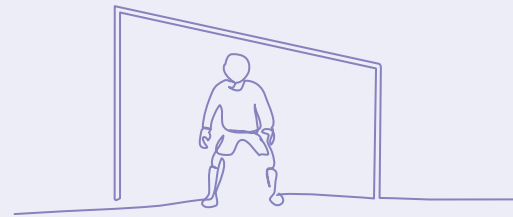
개선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다. 문제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 스포츠의 다양성을 고려해 종목별, 지역별, 수준별 세심한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2년 전 고심 끝에 대한항공 탁구단에 최연소 입단한 탁구 신동 신유빈은 “국제 대회에 자유롭게 나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고교 진학 포기 이유를 밝혔다. 탁구, 테니스 등 라켓 종목은 국제대회 랭킹포인트가 중요하다. 월드클래스로 성장하려면 국제대회에 참가해 경험을 쌓아야 하고, 국제연맹이 인정하는 랭킹을 확보해야만 주요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국가대표의 경우 출석인정 일수의 예외가 인정되지만 부상으로 올해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 신유빈의 경우 만약 일반학교에 갔더라면 국제대회 출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테니스 신동 조세혁 역시 같은 이유로 학교를 그만뒀다. 현장의 한 테니스 코치는 “테니스의 경우 20명 넘는 학생들이 자퇴했다. 출전에 제약을 받는 학교 제도권 내 선수들은 전국대회 16강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방통고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 중인 신유빈은 “고등학교에 갔다면 운동하는 데 더 힘들었을 것 같다”면서 “학교 안에서 모든 선수, 학생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희망했다.

문체부 발표 이후 현장 학부모, 지도자들의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방형성은 ‘운동만 하겠다. 학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맘껏 즐기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업을 병행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다. 주중 대회 출전 제한 이전에 각 지역 훈련장, 경기장 부족 문제가 선결돼야 하며, 학생선수들의 은퇴 이후 다양한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대학입시에서 동일계열 진학 제한을 폐지하고, 생활체육·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선 대학입시에 체육이 반영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커리큘럼과 국제대회 출전 시 보충수업을 위한 교사, 온라인 수업 지원 등 다양한 목소리도 있다.

‘테니스 선수 학부모’인 김동현 역도대표팀 코치는 “스포츠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을 통해 엘리트 선수를 키우는 선진국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캐나다·일본에서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된 이유는 대학입시에 체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이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1989년 부카츠(체육동아리) 활동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면서 학교체육이 활성화됐다. 중학생 90%, 고등학생 70%가 ‘부카츠’에서 활동한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입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학습권 보장도 운동선수를 일괄적으로 정규수업에 밀어 넣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호주의 경우 국제대회에 교사가 동행해 학생선수의 학습을 돕는 것도 봤다. 우리도 학생선수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육부에 전달하고,
 향후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체육정책협의체’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학생선수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호석 스퀘시대표팀 감독은 “선진국의 ‘공부하는 선수’ 예로 늘 선수 출신 변호사, 의사 등을 말하는데 동일계열 진학만 가능한 우리 교육제도에선 학생선수들이 다른 진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학습권을 보장한다면 공부할 원하는 선수들의 진로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학생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대부터 체육전공자의 전과나 타과 진학을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장인선 대한테니스협회 주니어육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요즘 선수들은 운동을 시킨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세대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지도자,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원해서 그 많은 경기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배움의 장은 교실뿐 아니라 경기장 안에도 있다. 규칙을 지키고 경쟁을 이겨내고 패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모두 교육이다. 교실 안에서 선생님의 언어로 배우는 것만이 교육은 아니다. 외국은 홈스쿨링도 인정한다. 온라인 수업도 허용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9월 8일 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비대면 간담회를 주최한 유승민 IOC위원은 과거보다 미래를 향한 고민과 제언을 강조했다. 유승민 위원은 “이제 ‘스포츠혁신위’는 없다. ‘혁신위’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아이들의 꿈을 위해 무엇을 할지, 미래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유승민 위원은 “첫째, 학생선수와 학부모 대상 대규모 설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취합해 문체부, 교육부에 전달하자”고 제안한 뒤 가장 관심 높은 ‘출석인정 일수’에 대한 의견도 냈다. “학생선수의 특혜인양 받아들여지는 출석인정 일수는 필요 없다.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면 진급하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약 63~64일)에 대해 체육활동을 현장 체험 학습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학생선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수업 선택권”도 제안했다. 유승민 위원은 “책상머리에서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현장 체험만큼 좋은 건 없다. 일례로 국제대회 참가 보고서나 발표를 평가해, 성적에 반영하는 등 생생한 현장 경험을 교육에 녹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테니스 조세혁 선수에게 7개월의 유럽투어는 얼마나 큰 경험이고 배움인가. 스포츠를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선수 꿈 지키기 위한 솔루션 찾기 ‘교육부 공감 필요’

모든 학교체육의 문제가 그러하듯 결국은 교육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 출석인정 일수,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등 교내 학사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학교장, 교육청, 교육부 소관이다. 대통령이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재검토를 공약했고 문체부가 개선을 발표했지만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키고 안정된 진로를 보장하려는 교육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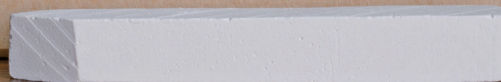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육부에 전달하고, 향후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체육정책협의체’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학생선수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SPORTS1**

주중엔 학교 수업, 주말엔 경기

우리 아이들은 언제 쉬나요?

글. 김창우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

학생선수의 학습권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학생선수에게 ‘학생’과 ‘선수’ 중 하나만 선택하길 강요한다면 옳바르다고 할 수 없다.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스포츠 인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이 학생선수를 그 선택의 갈림길에 몰아넣고 말았다. 체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정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지 이제라도 우리 어른들이 직시해야 한다.



운동선수 부모로서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다

필자는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이자 고등학교 1학년 농구선수 아들을 둔 학부모다. 지금의 대한민국 체육 정책은 학생선수 부모로서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게 만든다.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생체육 현장의 이해 없이 세운 권고안이 체육계에 남아

있는 적폐와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기보다 엘리트 선수로서 꿈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더욱 사지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단 며칠이라도 지켜봤다면 이런 권고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체육계 역사와 내면적인 문화적 습관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1차 권고안과 2차 권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1차 권고안 내용처럼 일부 지도자에 의한 성폭력과 체벌, 언어적 폭력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다행히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스포츠 인권 교육시스템은 현장 지도자와 학부모의 인식 개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스포츠 인권을 말하면서 출석인정 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 대회, 주말 대회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권고안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생선수는 주중에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주말에는 시합 하라고 경기장으로 내모는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학생선수는 쉼 시간이 없어진다. 성장기인 학생선수에게 휴식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힘이 되지 못한 '주말 대회'

학생선수 가족도 주말에는 여행 가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 하지만 현실의 학생선수와 학부모, 지도자는 주말마다 주말 대회가 열리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바쁘다. 실제로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고등학교 사이클 감독이라고 소개한

그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학교 사이클 선수들이 출석인정 일수 제한으로 훈련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화·수·목은 3교시까지 수업을 들은 뒤 인근 지역의 경륜장으로 이동해 훈련하고, 금요일은 타 시도로 이동해 주말 리그 및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니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빈번해 교통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하소연했다.

주중 대회 금지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더 있다. 수영이나 태권도처럼 학생선수가 1,000~2,000명이 참가하는 종목을 토·일요일 양일간 모두 치를 수 있



을까? 결국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말 대회 전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모든 종목의 주말 대회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낳은 비극

학생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허용일 수 축소도 문제다. 필자의 자녀가 학생선수로 뛰는 농구만 하더라도 예선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8-9일 정도가 소요된다. 만약 결승 팀에 권고안(2022년 기준)의 출석인정 결석허용일 수(초등 0일, 중등 10일, 고등 20일)를 적용하면 학교 수업일수를 도저히 맞추기 힘들다. 이렇듯 스포츠 정책의 이상과 현장의 현실 사이 간극 때문에 학생선수들은 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모든 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낳은 비극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스포츠혁신위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전문 선수와 동아리 선수를 아우르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순위 경쟁을 막고 모두가 평등하게 금메달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뜻이지만 사실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다는 것이 현장 반응이다. 만약 권고안대로 진행된다면 소년체전이 정말 초등학교 운동회보다 못한 대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년체전은 체육 꿈나무 발굴과 지역 스포츠 발전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해온 유·청소년들의 꿈의 무대다.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



학생선수에게 ‘학생’과
‘선수’의 갈림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과연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학생선수들이 좌절과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



더는 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선수가 없어야 한다

스포츠혁신위 2차 권고안이 지향하는 목표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다. 하지만 권고안에 따라 학업과 운동의 병행을 실천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침은 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에 관한 실제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일을 예로 들어본다. 해당 학교는 수업 종료 후 진행되는 오후 훈련을 19시에 강제 종료했다. 학교 측에서 더는 운동할 수 없도록 운동장 조명을 꺼버린 것이다. 그러면 학생선수들은 훈련할 장소를 찾아 개별적으로 사설 야구 학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선수는 사설 학원을 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암담한 상황이 펼쳐진다. 이것이 스포츠혁신위가 말하는 스포츠 인권인 걸까? 이러한 현실에도 우리 학생선수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어른들이 무슨 권리로 이런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헛되게 만들고, 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드는 걸까? 이에 대해 테니스 신동 조세혁 선수 아버지 조성규 씨는 “국내외 경기 일정을 고려하면 도저히 학교 수업일수를 맞출 수가 없으며, 학교장 허가 아래 학생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허용 일수가 2023년에는 초등학교



학생선수가 스포츠 정책의
이상과 현장의 현실 때문에
스스로 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는 멋진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0일, 중학교 0일, 고등학교 10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부 선수들은 학교를 관두느냐, 운동을 관두느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학생선수를 둔 모든 학부모와 지도자의 마음과 같다.

학생선수의 꿈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학생선수에게 ‘학생’과 ‘선수’의 갈림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학생선수들이 좌절과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농구선수 아들을 둔 학부모로서,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로서 우리 학생

선수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일반 학생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최저학력제를 빠른 시일 내에 폐지시키고, 윤석열 정권 인수위가 발표한 대로 2019년 이전인 59~63일 정도의 대회 출전 허용일수

로 하루빨리 되돌려야 한다. 또한 대학교 운동부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평가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평가지표 중 A 대학교가 도서관에 책을 1,000권 구입해 비치하면 교육부는 대학평가에서 그 부분을 점수에 반영한다. 하지만 A 대학교가 운동부를 10개 혹은 100개 운영해도 대학평가 점수는 0점이다. 대학에서는 굳이 운동부를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대학 운동부가 많이 생겨야 초·중·고 운동부도 늘고, 해당 종목 선수 또한 많이 증가해 박지성,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많이 탄생할 것이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딱 맞는 속담이다. 정부가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의 개선을 결정한 만큼 체육계 종사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꿈은 꿈을 꾸는 자의 것이지 타인이 그 꿈의 크기를 간섭할 수 없다. 학생선수가 스포츠 정책의 이상과 현장의 현실 때문에 스스로 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는 멋진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SPORTS1**



3년 만에 정상 개최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는 우리나라 지역 대표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국내 최대 스포츠축제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 서울 배재고보에서 열린 '전조선야구대회'로 시작해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얻고 서로 화합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제101회 대회는 개최되지 못했고, 제102회 대회는 무관중 고등부 대회로 축소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정상 개최한 제100회 대회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된다는 점에서 선수단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최다 선수단 참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엿보기

글 편집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울산광역시에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만큼 그 어느 대회 때보다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선수단 역시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한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주요 키워드로 만나본다.

울산종합운동장 등 73개 경기장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울산종합운동장 등 73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그중 울산광역시 경기장은 중구 10개, 남구 26개, 동구 9개, 북구 5개이다. 그밖에 대구, 강원, 충북, 경북(문경·상구), 경남의 9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개회식은 10월 7일 늦은 6시에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며, 3만 여명(사도 선수단 및 관람객)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49개 종목 진행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총 49개(정식 종목 46, 시범 종목 3) 종목을 진행한다. 정식 종목은 기록경기와 토너먼트경기로 나뉜다. 먼저 기록경기는 총 22종목으로 골프, 궁도, 근대5종, 댄스스포츠, 롤러, 볼링, 사격, 산악,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수영, 승마,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육상, 자전거, 조정, 철인3종, 체조, 카누, 핀수영이 진행된다. 토너먼트 경기는 단체에서 농구, 럭비, 배구, 세팍타크로, 야구·소프트볼, 축구, 하키, 핸드볼의 8종목을, 개인단체에서 검도, 바둑, 배드민턴, 스쿼시, 소프트테니스, 탁구, 테니스, 펜싱 8종목을 진행한다. 개인(체급)은 당구, 레슬링, 복싱, 씨름, 우슈(산타), 유도, 태권도, 택견 8종목이다. 이밖에 보디빌딩, 합기도, 족구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다. **SPORTS**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3일부터 25일까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8,837명의 임원과 1만 8,769명(남 1만 2,006명, 여 6,763명)의 선수가 신청해 역대 최다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를 진행하게 됐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2만 4,988명과 비교하면 약 11%가 증가했다. 3년 만의 정상 개최라는 선수단의 기대와 보디빌딩, 합기도, 족구 종목의 신규 도입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역대 최다 **27,606명** 선수단 참가

2022 스포츠진학·진로·취업박람회 ‘스스로(路)’ 열려

글. 편집실

스포츠계에 진출하고 싶은 학생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2022 스포츠진학·진로·취업박람회’가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스포츠에서 시작해 스포츠로 가는 길을 찾는다’는 의미로 ‘스스로(路)’로 명명됐으며, 스포츠 관련 진학 상담, 진로 탐색 및 소개, 취업 상담을 하나로 묶어 제공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진학·진로·취업박람회 부스 운영

대한체육회는 2022 스포츠진학·진로·취업박람회 행사장 내 별도의 부스를 마련하고 체육계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설계 및 준비의 중요성과 직업 정보를 안내했다. 또한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설계를 돕기 위해 진로 상담 등을 진행했다. 부스를 찾은 방문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스포츠 관련 진로·진학을 위해서는 어느 대학교에 진학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며, 어떤 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부스를 찾은 방문자에게 팀코리아 마스크, 오윤 선글라스 등 기념품을 증정했다.

스포츠에서 시작해 스포츠로 가는 길 찾기

2022 스포츠진학·진로·취업박람회 ‘스스로(路)’는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재단이 후원한 행사다.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첫날 개회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제2차관, 김예지 국회의원, 임오경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박준섭 사무총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박태영 전무이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승민 위원이 자리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한체육회 박준섭 사무총장은 “학생 및 청년 여러분이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여러분이 꿈꾸는 내일을 대한체육회가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이틀간 6,0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이번 박람회에서 부스를 개설한 기관은 입시를 앞둔 전국 대학, 국내 주요 스포츠 단체, 스포츠 기업으로 이들은 스포츠계에 관심 있는 학생과 청년들의 진학·진로·취업 상담 및 기관 홍보에 최선을 다했다. 스포츠계에 관심 있는 학생, 부모, 청년 및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니 그 열기가 무척 뜨거웠다.

대학 35곳의 진학 상담 부스에서는 예비 신입생과의 상담이 이뤄졌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와 학교체육진흥회도 고등학교 2~3학년 선수를 중심으로 진학 상담을 벌였다.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등 국내 주요 스포츠 단체들은 다양한 진로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스포츠 기업들은 IT 기업을 중심으로 나왔다. 체성분 분석기, EMS 운동기기, VR 운동 시스템 등 다양한 스포츠 관련 업체가 참가했다. 야구·축구·농구·배구·골프 등 프로 종목 단체들도 통합 부스를 마련했다. SPORTS1



최고 권위의 테니스 대회 '윌블던' 개최

1877년

150여 년을 이어온 신사의 품격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공을 치고받으며 승부를 겨루는
테니스는 그 어떤 스포츠보다 빠르고 격렬하다.
하지만 코트 위 선수들은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매너를 중시한다.
테니스를 '신사의 스포츠'라고 부르는 이유다.
1877년 제1회 대회가 열린 윌블던은 1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가장 권위 있는 테니스 대회로 이어져오고 있다.
그 시간 안에서 테니스는 독보적인 히스토리를 이어가며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테니스 대회의 주요 역사

1877년

제1회 윌블던 개최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에서
정식종목 채택

1928년

제9회
암스테르담올림픽
정식종목 제외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정식종목 부활



“재능은 없었어요, 엄청 연습했어요”

조세혁 선수의 올해 활약은 대단했다. 지난 7월 뽀뽀 대회 14세 부문 남자 단식에서 첫 우승을 거머쥔 게 시작이었다. 뽀뽀 대회는 주니어 부문 선수보다 더 어린 선수들을 위해 올해 14세 부문을 신설했는데 조세혁 선수가 초대 우승자가 됐다. 국제테니스연맹(ITF) 유럽 투어링팀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로 선발돼 유럽 주니어 대회까지 석권했다는 희소식도 연이어 날아왔다. 현재 아시아테니스연맹 주니어 랭킹 1위로 등극해 ‘한국 테니스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도대체 조세혁이 누구냐’는 탄성이 터져 나올 만큼 엄청난 기량을 발휘했는데 정작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요. 올해는 운도 좋았고요. 국외 대회는 국내에서 치르는 경기보다 항상 두세 배는 더 긴장돼요. 상대 선수도 저를 모르고 저도 상대편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조세혁 선수가 테니스 라켓을 쥐기 시작한 건 다섯 살 무렵. 아버지가 테니스 코치로 활동 중인데다 어머니도 대학생 때까지 테니스 선수로 활동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처음엔 취미 삼아 시작했는데 테니스에 푹 빠져 여섯 살 때는 이미 ‘테니스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았으니 재능도 함께 물려받은 것이냐고 했더니 조세혁 선수는 “재능은 없었어요. 그냥 엄청 연습했어요”라며 씨익 웃는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건 맞지만 그건 재능의 영향이 아니라 ‘열심히 배운 덕분에’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에 재능을 타고 났으면 조금만 연습해도 빨리 배웠을 텐데 저는 하루 이틀만 연습을 안 해도 라켓을 처음 잡는 초보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조세혁 선수의 훈련량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아침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하루 6시간은 빠짐없이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훈련을 한다. 올 여름 폭염에도 이곳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훈련에 매진하기 위해 중학교도 자퇴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국외 대회가 많아서 도저히 학교 수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게 불가능했다.

“대회를 준비하려면 조퇴하고 훈련해야 했는데 제가 다니는 중학교는 조퇴가 안 됐어요. 학교 수업과 훈련을 병행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테니스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한국 테니스의 미래

테니스 선수

조세혁

글. 편집실

**다섯 살 무렵부터 테니스 라켓을 잡았다는
‘한국 테니스의 미래’ 조세혁 선수.**

**올해 만 열네 살이지만 테니스 내공은
10년 차다.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 키가
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180cm까지 훌쩍 자랐다.
이미 아시아테니스연맹 주니어 랭킹 1위에
등극했지만 실력도 키도 여전히 쑥쑥 성장 중이다.**





“어깨는 무겁지만 즐기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국내 대회를 휩쓸다시피 해 일찌감치 기대주로 주목받았지만 워블던 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어린 선수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기대가 집중돼 걱정된다고 했더니 조세혁 선수는 “괜찮다, 즐기는 중”이라며 어른스러운 대답을 내놨다.

“워블던대회에서 우승한 뒤 주변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합할 때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좀 힘들어지긴 했어요. 아빠도 평소에는 테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코트장을 벗어나면 테니스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아빠는 어릴 때부터 늘 ‘테니스는 즐겨야 한다, 게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열네 살, 우승에 대한 강박보다는 마음껏 즐기는 것이 더 어울리는 나이임을 조세혁 선수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일까. 어린 나이에 비해 ‘멘탈’이 강한 선수로 손꼽히며 어떤 대회에서든 흔들림 없는 경기를 보여준다. 조세혁 선수는 그 비결에 대해 어릴 때부터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은 덕분이라고 소개했다.

“멘탈이 흔들리면 세계 랭킹 1등 선수도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멘탈을 잘 잡고 있으면 경기를 자신의 의지대로 잘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주변의 권유로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심리센터를 주 2회씩 다니며 상담을 받았어요. 정신력을 좀 더 강화하고 싶어서 중학교 2학년까지도 꾸준히 다녔는데 경기를 치를 때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워블던 대회 때도 첫 세트에서 이기고 두 번째 세트에서 지는 팽팽한 접전 속에서 침착하게 경기에 집중한 끝에 결국 승리를 거머쥔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는 상황이 재미있기도 하단다. 자신과 관련된 신문기사도 꼼꼼하게 보는 편이다.

“테니스 괴물이 나타났다는 기사도 읽었어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세혁 선수는 롤모델로 노박 조코비치 선수를 꼽는다. 조코비치는 늘 “경기의 승패는 체력 차이가 아니라 결국 정신력”이라고 말하는 선수이다.

“조코비치 선수는 경기가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스트로크도 훌륭하고 스포츠맨십도 뛰어난 선수라 여러 가지로 닮고 싶은 점이 많아요.”

조세혁 선수는 워블던 대회에서 실제로 조코비치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자랑했다. 조코비치와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롤모델이라는 말은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모습에 서는 어린 선수다운 해맑음이 엿보였다.

“테니스에 인생을 걸었어요”

조세혁 선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테니스에 인생을 걸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모를 나이에 ‘인생을 걸었다’는 건 그만큼 테니스가 좋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릴 때도 테니스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중학교 올라오면서 테니스가 더 많이 좋아졌어요. 제 또래 선수들의 기량은 비슷비슷해서 대회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훈련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내는 모든 과정이 즐겁고 짜릿해요. 최근 들어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

어릴 때도 테니스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중학교 올라오면서
 테니스가 더 많이 좋아졌어요.
 제 또래 선수들의 기량은
 비슷비슷해서 대회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훈련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내는
 모든 과정이 즐겁고 짜릿해요.

”

저 응원을 받는 것도 정말 기분이 좋아요.”

조세혁 선수는 수비력과 공격력을 고루 갖춘 올라운드형 선수에 속한다. 또래 선수 중에는 드물게 180cm의 장신인데다 공격적인 포핸드와 백핸드가 강점이라 상대 선수를 압도하는 분위기까지 갖췄다. 여기에 성적까지 탁월하니 ‘테니스 괴물’이라 불려도 부족하지 않을 듯하지만 조세혁 선수는 앞으로 더 배우고 발전시켜야 할 점이 많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미국의 IMG 아카데미로 유학도 앞두고 있다. 세계적인 테니스 사관학교로 알려진 IMG 아카데미는 쾌적한 연습 시설 속에서 우수한 코치진으로부터 훈련받을 수 있지만 1년 훈련비가 1억 원이 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혁 선수는 대한테니스협회로부터 향후 3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이곳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테니스 선수로서 ATP(세계 남자 테니스 단식) 랭킹 50위 안에 드는 선수가 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테니스에 인생을 건 어린 선수에게 이번 유학의 기회가 기량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성장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SPORTS**





역도, 기술로 힘을 폭발시킨다!

글. 편집실

무거운 바벨을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면 역시 힘센 사람이 역도를 잘할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바벨을 들어 올리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단순한 힘보다 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고도의 기술과 종합적인 신체 능력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신체 능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운동

역도는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그 중량을 거루는 경기다. 그 시작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가는데 당시엔 단순한 힘겨루기에 불과했다. 그러다 1800년대 이르러서야 근대 경기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역도는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에서도 다뤄졌지만, 당시엔 체조의 한 부분에 불과했으며 체급도 나뉘지 않았다. 독립된 경기로 인정받은 시기는 1920년 제7회 안트베르펜 올림픽부터이며 체급을 5개로 구분해 경기를 진행했다. 그리고 1928년 제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부터 양손을 사용하는 추상, 인상, 용상 세 종목이 채택됐다. 하지만 추상 종목은 판정의 모호성과 부상 위험을 이유로 1972년 뮌헨올림픽을 끝으로 폐지됐다.

역도는 힘만 세면 잘할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바벨을 들 때 단순히 힘(Strength)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힘에 속도(Speed)를 더한 파워(Power)를 사용한다. 이외에도 중심 이동, 탄력, 유연성, 균형 감각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한다.

인상·용상의 특징과 기록 차이

바벨을 한 번에 들어 올리는 인상이 두 번에 걸쳐 들어 올리는 용상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무게를 든다. 일반적으로 인상 기록은 용상 기록의 약 80%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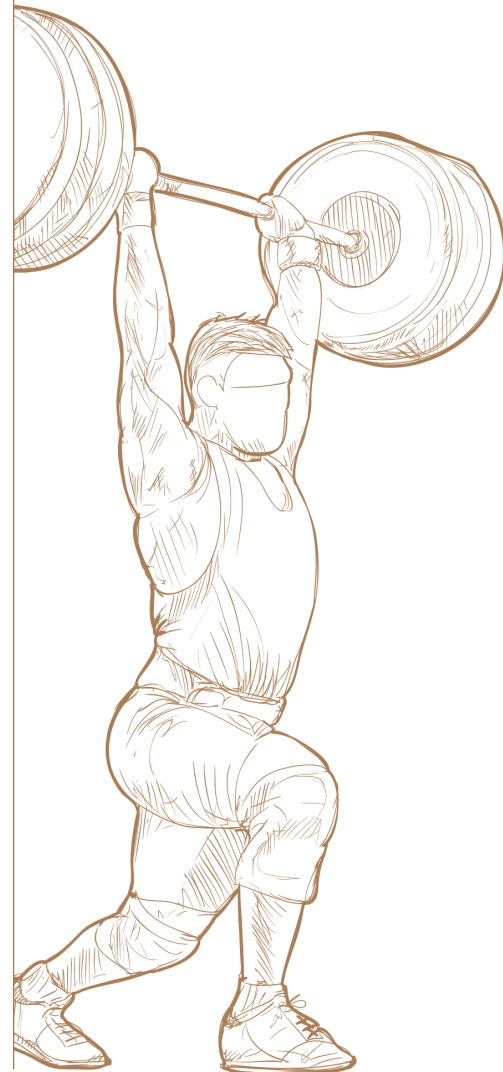
인상

바의 폭을 넓게 잡고 한 번의 동작으로 바벨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다음 그 상태로 일어나는 종목.



용상

클린과 저크 2단계 동작으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종목. 클린 동작에서 바벨을 어깨까지 끌어올리고, 저크 동작에서 단번에 머리 위로 뺀어 올린다.



기술의 기본 원칙, 신체 중심과 균형 잡힌 근력

역도 기술의 원칙은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중량을 들어 올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복합적으로 충족해야 하지만, 우선 신체 중심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균형을 유지하며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려면 바벨을 신체 중심에 밀착시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신체의 큰 근육을 사용해 더 많은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다. 반대로 바벨이 신체 중심에서 멀어지면 같은 중량의 바벨을 들더라도 더 많은 힘이 필요해진다. 즉,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이때 발생하는 부하를 신체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 부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선수들은 신체 무게중심과 바벨의 거리를 최단으로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좌우 근력의 균형도 중요하다. 좌우 힘이 다르면 바벨이 한쪽으로 틀어지며 중량도 치우친다. 이는 경기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신체 균형을 잃고 부상을 입기도 한다.

경기 특성에 따른 신발의 조건

신체 중심이 어긋나면 낼 수 있는 파워가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주춧돌 역할을 하는 발과 신발 또한 중요하다.



무거운 하중을 견디며 지면을 강하게 딛고 중심을 유지하도록 딱딱한 아웃솔(바닥)을 사용한다.



굽이 높은 쪽이 더 많은 부하를 받으므로 좌우 굽 높이가 같거나 체형에 맞춰 조정한다.



신발이 헐거우면 발이 흔들려 힘의 전달이 부정확해진다. 신발은 발에 딱 맞아야 한다.

체중의 3배를 드는 비밀, 작용과 반작용의 극대화

역도 기술의 주요 원칙을 이해했다면 다음은 바벨을 폭발적으로 드는 비밀을 엿볼 차례다. 흔히 일반인은 “바벨을 들어 올린다”고 하고 역도 경험자는 “바벨을 띄운다”고 말한다. 그 차이는 역도에서의 작용과 반작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렸다. 일반인은 역도 경기를 보며 허릿심으로 바벨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힘의 대부분은 용수철처럼 무릎을 굽혔다 펴는 데서 나온다. 이런 이유로 역도 선수들은 바벨이 무릎 위를 지날 때 무릎을 다시 앞으로 밀어 넣는 ‘이중 무릎 굽힘’이란 기술을 사용한다. 처음 바벨을 들어 올리며 편 무릎을 다시 굽히는 것인데 이는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활용해 힘을 최대로 얻기 위함이다. 즉 튀어나온 용수철을 다시 눌러 두 번째 반동력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폭발적인 스피드다. 바벨을 재빨리 들어내는 찰나의 스피드는 파워를 더욱 높인다. 결국 역도는 무릎을 활용해 만든 탄력과 하체의 힘으로 바벨을 위로 튕기듯 들어 올리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다. **SPORTS1**

탄성 있는 바를 사용하는 이유

바의 탄력이 좋으면 고중량을 다룰 때 관절의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 외에도 선수의 동작 수행과 드롭에 용이하다. 역도 경기에 사용하는 바는 국제역도연맹(IWF) 기준에 부합하고 공인을 받아야 한다.



남자

중량 20kg
길이 2,200mm
직경 28mm



여자

중량 15kg
길이 2,010mm
직경 25mm

글. 편집실 참고자료. <2021 e스포츠 실태조사>,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

우리나라는 e스포츠 중주국답게 관련 산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e스포츠에 대한 정의 정립부터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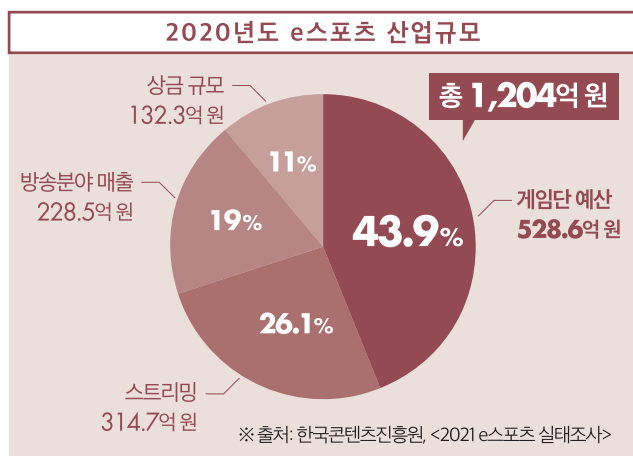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e스포츠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e스포츠 현황과 미래 스포츠 산업의 발전



e스포츠는 정말 스포츠라고 부를 수 있을까?

e스포츠는 'Electronic Sports'의 줄임말로 단어 그대로 전자스포츠를 말한다. 그렇다면 e스포츠를 정말 스포츠라고 부를 수 있을까.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e스포츠를 '게임물을 이용해 하는 경기 및 부대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명확하게 스포츠 또는 체육활동의 일부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2021년 6월 e스포츠를 비롯한 바둑, 체스, 장기 등 두뇌를 이용한 활동을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는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는 스포츠를 '건전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한다. 만약 두뇌를 이용한 활동을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스포츠는 스포츠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와 별개로 e스포츠는 스포츠 및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올림픽 아젠다 중 하나로 e스포츠에 대한 내용을 채택했다.



e스포츠 산업 규모는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e스포츠는 1998년 미국 게임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 출시와 함께 시작됐다. 스타크래프트는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많은 게임 대회를 만들어냈다. 이는 게임 방송의 중계, 게임 경기장 건설, 게임 전문방송국 개국 등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세계 최초의 프로게임리그까지 개최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e스포츠 중주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5년 722억 9,000만 원에서 2020년 1,204억 1,000만 원으로 성장했다. 2021년 9월 기준 e스포츠 게임단은 총 49개, 프로게이머는 414명, 지도자는 163명에 달한다. e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게임 산업 역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게임 시장은 전년 대비 11.7% 성장했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21.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은 6.9%를 차지해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e스포츠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려면?

e스포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대기업들은 e스포츠 프로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e스포츠 선수(프로게이머)에 대한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최근 몇 년간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정보를 보면 e스포츠 선수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e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 및 직업은 아직 제한적이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e스포츠 학원은 프로선수 육성 등을 약속할 뿐 e스포츠 관련 다양한 직업과 연계가 가능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등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일부 스타 선수를 제외하고 e스포츠 게임단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21년 2월에도 발로란트 게임단인 베어클로 게이밍 소속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10여 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또한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e스포츠 내 다양한 종목에 대한 선수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원 역시 보장해야 한다. SPORTS1

신나고 즐거운 롤딩 롤딩 롤딩~♪

롤러스케이트 동호회 ‘롤딩(rollding)’

글. 편집실

즐겁지 않은 건 의미가 없다. 여기 다양한 세대가 모여
신나는 음악에 맞춰 즐기는 속도에 꼭 빠진 이들이 있다.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롤딩’ 회원들이다.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향해 힘껏 질주해보자.





Q 롤러스케이트는 어떤 종목인가요? 더불어 간단한 동호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롤러스케이트는 빙판 위가 아닌 도로나 지정된 트랙 위를 달릴 수 있게 바퀴를 단 스케이트입니다. 그중 바퀴가 이열로 4개 배치된 것을 롤러스케이트, 일렬로 배치된 것을 인라인스케이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호회는 수원특례시와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롤러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2018년 10월에 만들었습니다. 역사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롤러스케이트에 대한 관심과 회원 간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결속력이 매우 단단하죠. 모임은 주로 수원특례시 영통구 망포역 인근에 위치한 판타지움 건물 1층 '로라비트'에서 갖고 있는데, '롤딩성인'과 '롤딩주니어'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회원은 어떻게 뽑고 있나요? 현재 활동하는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이버 밴드 '롤딩(Rolling)'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제한은 없으며 롤러스케이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회원들과 하나가 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죠.

현재는 수원특례시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18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롤러스케이트에 대한 추억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거나 무료한 일상을 날려줄 활동적이고 즐거운 생활체육을 찾고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Q 모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정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저녁을 '운동하는 날'로 정하고 '로라비트'에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평일이나 주말을 이용해 회원들 간 번개 모임도 즐기고 있는데, 수원특례시가 아닌 타 지역 분들은 각자 생활권에 위치한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 계시죠. 또한 온라인 활동도 활발한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롤딩 영상과 사진을 올리며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 채팅과 게시글에 답글을 달며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소통하고 있습니다.

Q 운동 혹은 생활체육으로서 롤러스케이트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전한 동호회 활동을 위해 어떤 점을 신경 쓰고 있나요

롤러스케이트는 장비 구입에 큰돈이 들지 않고 배우기 쉬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동호회는 가족 단위 회원이 많죠. 또한 대부분 실내에서 즐기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아 꾸준히 즐기기 좋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꾸준히 타면 다이어트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롤딩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저만치 달아나죠.

우리 동호회는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 롤러스케이트를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롤딩 전 서로의 보호장비를 체크해주고, 초보자들을 위한 강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밴드에 업로드해 공유하고 있고요.

Q 혼자가 아닌,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얻는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최근 세대 간 갈등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를 살아온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줄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롤러스케이트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인 만큼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동호회는 10대부터 50대 이상의 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활동하고 있는데, 함께 웃으며 활동하는 모습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즐거움만 존재합니다. 시니어 세대의 음악과 최신 아이돌 음악을 번갈아 들으며 서로 운동하고 소통하는 것도 롤러스케이트가 아니면 보기 힘든 모습 같고요. 또 단체활동을 통해 단합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롤딩 동호회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동호회의 가장 큰 장점은 회원 간 두터운 우정과 다양한 이벤트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모임인 '운동하는 날' 이외에도 매달 주말 하루를 정해 다른 지역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원정을 가며 지역 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죠. 또한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은 그달 생일을 맞은 분들을 위한 생일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의 이벤트 데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날은 색다른 복장(교복, 할로윈 복장 등)을 입고 롤딩을 즐깁니다.



‘롤딩’을 소개합니다

밴드 및 온라인 활동

네이버 밴드 '롤딩(Rolling)'

동호회 조직일

2018년 10월

동호인 수

180명

모임 주기

정기 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

비정기 모임: 매일

대회 혹은 연례 활동

매월 둘째 주 목요일(동호인 생일파티),

매월 1회 이상의 이벤트 데이 진행 등



Q 동호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동호회 활동에서 얻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역시 혼자가 아닌 단체활동을 통해 얻는 소통과 화합의 즐거움이겠죠. 우리 동호회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서로의 생일을 챙기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 등을 통해 번개 모임을 활성화시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롤러스케이트를 시작하고 싶은 초보자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롤러스케이트는 큰 비용이 들지 않을뿐더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생활체육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무료함을 달래줄 즐거운 운동을 찾고 있다면, 가족이 함께 즐길 운동을 찾고 있다면 롤러스케이트에 도전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금방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가족, 친구 그리고 연인이 함께할 수 있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멈추었다 다시 시작된 롤러스케이트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롤러스케이트가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SPORTS1**





체육 교육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글. 편집실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자리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이하 동대부고)는 지혜와 자비의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술과 인격 연마를 돕고 있다.

2014년부터 체육중점 교육을 진행하며 체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인성이 바른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동대부고를 찾아가 현재 진행하는 체육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

Q 동대부고를 소개해주세요

동대부고는 1947년 개교 이래 '학습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이라는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바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9년차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김민섭입니다. 동대부고에서는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업무 총괄과 체육중점학급 고3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Q 체육교육과정 특성화(중점)학교를 진행한 계기와 시기는?

그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나요

남자고등학교로 체육 계열 대학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축구부도 운영하고 있고요. 체육교육과정이 개설되기 이전에는 체육 계열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축구부 학생들도 체계적인 관리 및 입시지도를 받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통해 체육 계열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체육 관련 진로 탐색 기회 제공과 공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체육 계열 대학 입시지도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축구부 학생들의 체계적 관리와 맞춤식 교육 및 입시지도를 할 수 있게 됐죠. 우리 학교는 2014년부터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고등학교 체육중점학교'로 선정돼 1학급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2학년 1학급, 3학년 1학급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교육과정은 크게 '정규 교육과정, 방과 후 과정, 창의·인성교육, 진로·진학교육, 홍보활동 및 기타 프로그램' 5개 영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학년별 체육특성화 교육 과정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동대부고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현재 2학년은 1학급 15명, 3학년 1학급 29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각 학급은 선발된 일반학생과 축구부 학생으로 구성돼 있죠. 체계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체육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분된 시수 확보를 위해 5명의 체육교사와 2명의 전문실기 강사가 체육 실기 심화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 3학년 모두 교과 30단위 중 12단위를 체육수업으로 편성해 운영합니다. 2학년은 운동과 건강, 체조 운동, 스포츠 경기 체력, 체육 탐구 수업을 진행하고, 3학년은 스포츠 생활, 체육 지도법, 단체운동, 스포츠 개론, 개인·대인 운동 수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학교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2017년부터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들 수 있겠네요. '담임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단 활동'과 장애인식개선 '아깨동무체험 교실'이 그것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휠체어 종목, 골볼 등을 경험해봄으로써 장애인식 개선과 특수체육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체육에 관심을 갖고 진학하는 학생도 있죠. 그밖에 축구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어민 영어 수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축구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개인 수준별 맞춤식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영어 사용 기회 확대 및 영어 말하기·듣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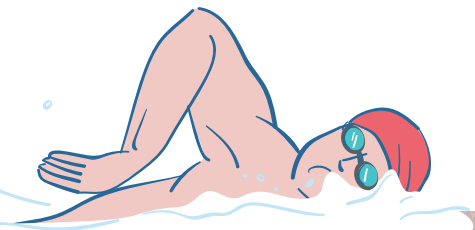
Q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체육교육과정을 학급구성 형태로 운영해서 한 학급에 체육 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거나, 체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 그리고 축구부 학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수업,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죠. 담임도 체육과 선생님이 맡아 진로·진학에 있어 좀 더 전문성 있는 지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동대부고 입학에 희망하는 일반 및 축구부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체육중점교육 이전에는 학생들이 단순히 대학 진학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며, 관련된 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진로·진학 과정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Q 학교 입장에서의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동안 '2017년 학교체육 활성화 우수학교 서울시 교육감상'과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분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학교체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적으로 동대부고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많은 학부모님께서 동대부고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전·입학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동대부고 홍보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체육교사가 체육 계열 대학 진학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예체능 계열 입시는 실기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를 사교육이 아닌 학교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 학교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과 입시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학생 입시지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운영하며 갖춘 각종 실기 측정 장비는 실제로 학생이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학생을 지도하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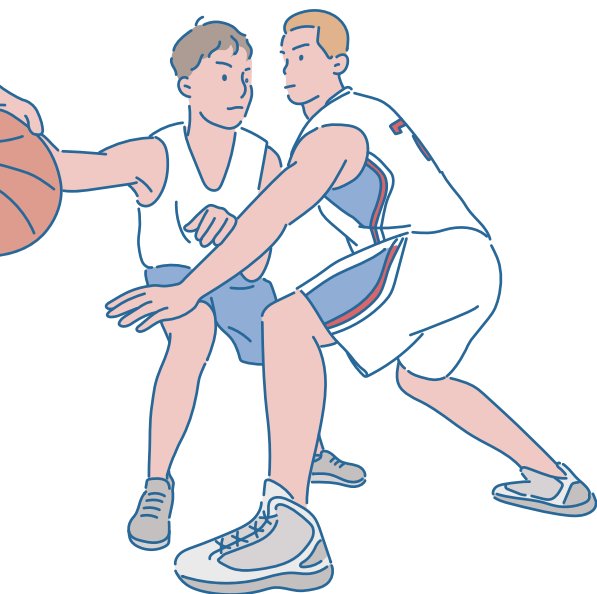
제가 체육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체육과 나와서 뭐 할래?”였습니
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학부모님께서 “체육과 나오면 뭘 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학교 체육교육과정은 학생이 대학 진학 후 방향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
계열 진로·진학 특강교육을 통해 체육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셔 다양한 체육 관련 직
업을 소개하고, 관심과 흥미가 생긴 직업에 스스로 꿈과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의 운영 프로그램이 외부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
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및 여러 단체와 협약을 맺고, 현 상태의 인적·물적 자
산을 최대한 이용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죠.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는 교사의 이익과 편의와는 정반대되는 사업입니다. 교사가 힘들
고 어려울수록 학생에게 많은 이점이 돌아가죠. 우리 학교 체육교사 모두는 학생에게 무엇
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동대부고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부고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
던 것은 학교 구성원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SPORTS1**



동대부고 교육활동 프로그램

구분	내용
정규 교육과정	학력신장 방안, 체육전문교과 심화과정 수업
방과 후 과정	수준별 방과 후 수업, 체육심화교과 수업,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창의·인성	담임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및 인성교육
진로·진학	대학탐방 및 특강교육, 진로 체험활동, 개별 학생 맞춤식 상담 및 교육, 진로·직업 탐색활동
홍보 및 기타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홍보, 입시 설명회, 기타 운영 활동

요즘 스포츠팬, 팬덤 플랫폼에서 놀다

글. 편집실

‘좋아하는 스타와 대화하고 싶다.’
스타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일이다.
이런 팬들의 꿈이 실현되는
공간이 있다. IT 기술을 활용해
스타와 팬을 직접 연결하는
‘팬덤 플랫폼’이 그것. 팬덤 플랫폼은
팬덤(Fandom)과 플랫폼
(Platform)의 합성어인데,
팬으로서 스타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전환기를 열다

‘클럽하우스’

음성 기반 SNS인 ‘클럽하우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대면 만남이 보편화된 2020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등 세계적인 셀럽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인기는 가속도를 더했다. 클럽하우스가 짧은 시간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올리며 타인과 교류했던 기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달리 음성으로 소통하며 더 인간적인 소셜미디어 경험을 제공한다는 차별성 때문이었다. 거기에 초대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는 폐쇄성은 이용자들에게 ‘이 앱을 이용하는 나는 특별하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클럽하우스의 성장에 스포츠 업계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프로 미식축구 리그인 NFL은 클럽하우스와 손잡고 2021년 4월 NFL 드래프트를 생중계했다. NFL 계정은 팬들이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드래프트 유망주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가상 드래프트에 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드래프트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북미 아이스하키리그 NHL의 몬트리올 캐나디언스와 탬파베이 라이트닝 구단도 스탠리컵 결승전을 앞둔 미디어 데이 때 클럽하우스를 활용해 팬들과 소통했다. 하지만 클럽하우스의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용자 지표는 2021년 2월 정점을 찍은 뒤 신규 이용자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이용자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SNS로 돌아갔다.

비록 반짝 인기에 그쳤지만 클럽하우스가 주는 교훈은 있다. 팬의 영역이 디지털로 옮겨지면서 팬들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원한다. 그 지점에서 클럽하우스는 이용자에게 남다른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소셜미디어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었다. 그리고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스타와 팬들과의 소통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방식을 찾게 만들었다.

아이돌 스타에서 스포츠 스타까지...

팬덤 플랫폼의 진화

팬덤 플랫폼은 우리에게도 더 이상 낯선 영역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팬덤 플랫폼이라는 영역을 맨 처음 개척한 것은 하이브의 '위버스'다. 하이브는 2019년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소속 가수들의 공식 카페를 폐쇄하고 위버스를 출범시켰다. 이후 아티스트와 소통은 물론 콘서트 공지, 쇼핑몰 등을 위버스를 통해 제공했다. 게임 기업 엔씨소프트는 2021년 케이팝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를 134개국에 동시 출시했는데 2022년 8월 기준 230여 개국에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설립된 '디어유'는 SM엔터테인먼트 IT계열사로 시작해 2019년 팬 커뮤니티 서비스인 '리슨'을 제공하며 팬덤 기반의 사업을 시작했다. 디어유는 리슨 가입자를 대상으로 슈퍼주니어, 엑소 등 SM 소속 아티스트와의 '스타 채팅' 서비스를 한정 이벤트로 진행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를 계기로 2020년 팬 커뮤니티와 메신저 서비스를 결합한 '버블'을 선보였다. 현재 구독형 서비스로 운영 중인데, 팬이 원하는 아티스트를 선택해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아티스트가 자신을 구독한 팬들에게 답장을 보낼 수 있는 대화방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디어유는 최근 아이돌 스타 중심에서 팬덤 문화가 존재하는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2년 1월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의 인기를 이끌었던 김연경, 김수지, 양효진 선수를 앞세워 스포츠 스타 전용 앱 '버블 포 스포츠(bubble for SPORTS)'를 출시했다. 이후 버블 포 스포츠는 메이저리그(MLB) 템파베이 레이스 소속 최지만 선수, 쇼트트랙 황대헌·김아랑 선수, 테니스 권순우 선수 등 다양한 종목의 인기 스타들로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팬덤 시장은 8조 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팬덤 시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팬덤 플랫폼 역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팬덤 플랫폼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 안에서 스타와 팬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 기대해본다. **SPORTS**

이거 놓치면 후회할걸! 대한체육회TV의 귀염뽀짝 열전 달리로그, 스포츠REC



브이로거로 변신한 달리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달리의 아심찬 브이로그(V-log) '달리로그'

지난 8월 5일, 대한체육회TV에서 유독 구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이 등장했어요. 바로 달리가 찍은 브이로그입니다.
'달리로그'는 이제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브이로거로 변신한 달리의 첫 번째 브이로그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리프레시(RE:FRESH) 체육대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로 침체되어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행사였죠. 국가대표 선수들의 체육대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달리는 첫 번째 브이로그를 무사히 마쳤을까요?
대한체육회TV 구독 신청하고 '달리로그'를 함께 시청해볼까요.



바로보기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글: 편집실

대한체육회 귀염둥이 마스코트 달리(Dalli)의 브이로그! 스포츠 찐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스포츠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직캠! 대한체육회가 준비한 귀염뽀짝 영상 열전. 지금 소개합니다.



선수의 경기 모습과 밀착 영상을 즐기세요! 스타 이런 모습 처음이야 '스포츠 REC'

스포츠 선수들의 땀방울 가득한 경기 모습과 무대 밖 순수한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면? 이것만큼 스포츠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영상이 또 있을까요. 대한체육회TV에서는 스포츠 선수의 경기 모습과 밀착 영상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수영계 뉴스타 황선우 선수의 국대 선발전 직캠, 한국 역도 기대주 박혜정 선수의 경기장 밖 귀여운 여고생의 모습을 담은 직캠, 멋진 연기를 마치고 대기석으로 돌아와 밝은 얼굴로 팬에게 화답하는 차준환 선수의 직캠 등 대한체육회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포츠 선수들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간직해볼까요? **SPORTS!**



바로보기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살찌기 좋은 계절? 운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 운동 전 체크 사항

글. 편집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무더위를 피해 잠시 멈췄던 운동을 시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꾸준한 가을 운동은 여름 동안 저하된 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일교차가 심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잦은 야외활동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을 운동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자.



운동 전 '일교차' 확인하셨나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지면 신체의 적정 체온 유지가 어려워진다. 그로 인해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새벽 시간대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 혈관 수축과 함께 혈압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체온 유지에 적절한 복장 입기

지나치게 얇거나 짧은 옷은 운동 후 땀이 빠르게 증발되어 열손실이 쉽게 일어나 감기 등의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가을철 운동 복장은 땀 흡수가 잘 되고 열손실이 적은 긴 소매와 긴 바지가 적합하다. 기온이 높은 한낮에 운동할 때는 짧은 소매와 짧은 바지를 입더라도 운동 직후에는 얇은 겉옷을 걸쳐 열손실을 막는 것이 좋다.

☑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몸에 수분이 많을수록 호흡기 질환의 위험은 낮아진다. 가을철에는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물과 함께 비타민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면역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자외선 꼼꼼하게 차단했나요?

가을은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낮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가을벌에 장시간 노출되면 색소질환과 같은 피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외선을 피하려면 피부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선크림 제대로 바르기

선크림을 고를 때는 피부 유형과 자외선 차단 지수를 살펴본 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한다. SPF 10~20, PA+는 일상생활에서 바르기에 적당하다. 자외선 지수가 높거나 장시간 야외활동을 할 때는 차단 효과가 더욱 높은 SPF 30, PA++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고,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면 외출 30분 전에 미리 바른다.

☑ 장시간 외출 시 선글라스·모자 챙기기

자외선 노출이 많은 장시간 야외활동 시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선글라스는 눈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눈 주변 피부도 지켜준다. 특히 자외선 지수가 높은 오후 2시 전후로는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사용해 선글라스가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까지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진드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있나요?

가을철 야외 운동이나 작업 시에는 야생 진드기를 조심해야 한다. 진드기 관련 환자의 70% 이상이 가을철인 9~11월 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진드기는 집 근처의 공원, 잔디밭, 숲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2~3mm 내외 크기라 식별이 어렵다. 하지만 작다고 무시하다간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

☑ 잔디 등에서 활동 시 밝은 색 긴 옷 입기

풀밭에 갈 일이 있다면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밝은 색의 긴 옷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에 돌아오면 외출 시 입은 옷을 털어서 바로 세탁한다. 또한 샤워나 목욕을 통해 몸에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진드기를 씻어내는 것이 좋다.

☑ 진드기에 물렸을 때 대처법 알아두기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드기를 제거해야 한다. 혹시 진드기에 물린 사실을 모르더라도 진드기 출몰 의심 지역을 지났다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잠복기인 14일 동안 발열·구토·설사·복통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SPORTS1**



도심 속 가을을 만끽하다 렛츠런파크 서울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경마공원 나들이 어때요?

렛츠런파크 서울은 도심 속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이맘때가 되면 알록달록 가을 옷을 입기 시작한 단풍과 경주마들의 힘찬 달음질 소리가 어우러지며 동화 속 풍경으로 초대한다. 또한 1988년 개관한 말박물관에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말과 관련한 각종 유물 1,300여 점이 전시되어 있고, 공원 곳곳에서 말을 테마로 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해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좀 더 가을을 만끽하고 싶다면 인근의 청계산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4호선 대공원역에서 출발해 서울대공원을 돌아 올라가는 청계산 등산코스는 단풍철에도 한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 **위치**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 **문의** 1566-3333





말과 함께하는 이색 체험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글. 편집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물어나는 가을 냄새가 성큼 다가온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는 계절. 살포시 내려앉은 가을을 마중하러 렛츠런파크(경마공원)를 찾았다.

2005년 개장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빅토빌리지는 수려한 조경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병원', 말이 거주하는 '승용마사', 말들의 체력증진과 재활치료를 위한 '말수영장' 등 말과 관련된 이색공간을 렛츠런투어를 통해 돌아볼 수 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포니승마장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미니호스를 타고 승마체험을 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사계절 썰매 동산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코스다. 어린이놀이터에는 종합놀이대, 플레이네트, 인공암벽 등이 있어 어린이들에게 재밌고 신나는 놀이공간을 제공한다. **SPORTS 1**

📍 위치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부산경남경마공원

☎ 문의 1566-3333



2022학년도 9월 SPORTS1 모의고사 문제지

도전! 나도 Sporter

스포츠와 일반상식 영역

<스포츠원> 9월호는 잘 읽었나요?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KSOC 모의고사'를 통해 다시 한번 독자분의 이해를 돕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정답은 <스포츠원> 9월호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9일 '스포츠혁신위원회 ○○○ 중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된 권고 등 3개 권고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 | | |
|-------|-------|
| ① 권고안 | ② 개선안 |
| ③ 법률안 | ④ 발전안 |

2 울산광역시에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국내 대표 스포츠 축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 |
|------------|----------|
| ① 전국소년체육대회 | ② 전국체육대회 |
| ③ 올림픽 | ④ 아시안게임 |



2022학년도 9월 SPORTS1 모의고사 문제지

3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그 중량을 겨루는 스포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illegible]

4

대한체육회TV에선 ‘브이로거’로 변신한 달리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마스코트 달리의 브이로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달리달려
 - ② 달리튜브
 - ③ 달리로그
 - ④ 달리영상



문제 해결

TIP

1번 힌트

국어사전 뜻풀이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안건!

3번 히트

장미란 선수 하면 떠오르는 종목

장미란 선수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종목이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정답 제출하기

QR코드 스캔 후 퀴즈 정답을 제출해주세요.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9월 중으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9월호 정답 제출 마감일: 2022년 10월 6일)

8월호 정답자

전*연(5493), 김*일(1111), 이*옥(7856), 윤*민(4704), 전*정(3963),
김*라(0393), 신*임(8800), 이*주(6730), 금*진(8803), 이*희(7452)

SPORTS1 NEWS

대한체육회

학생선수 학부모를 위한 진로 행사 개최

선수 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 일정 및 구성

경기력 향상, 소통 증진, 진로를 주제로 한 강연과 Q&A

경기력 향상: 경기력 향상요인 이해
소통 증진: 자녀와 소통 증진 방법
진로: 자녀의 진학과 진로 설계

일시	장소	주최	진행
8.4(목) 13:40~16:10	경주 화랑마을	황재관, 주정현, 이규성	
8.13(금) 13:40~16:10	경주 화랑마을	김은국, 장영란	
8.27(금) 14:00~16:30	롯데자이움	김주현, 김덕현	윤영길
9.24(금) 14:00~16:30	대전 위캔센터	황진, 이만형, 구본태	
10.29(토) 14:00~16:30	한국체대	이종재, 김보름	
11.5(토) 13:30~16:00	전북대		

※ 현재 8월 27일(금), 9월 24일(금), 10월 29일(토), 11월 5일(토) 프로그램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 중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 폼 <https://url.kr/csl9dpl>을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하기

대한체육회가 선수진로지원사업 일환으로 학생선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수부모 아카데미'와 '체육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학생선수가 선수로 생활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수의 성장 및 진로 선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선수부모 아카데미는 선수의 부모가 자녀를 선수로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이후의 경력개발까지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8월부터 11월까지 총 6번 개최한다. 경기력 향상, 자녀와 소통 증진 방법, 자녀의 진학 및 진로 설계 등 3가지로 구분해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한다. 8월 4일, 13일 경주 화랑마을, 27일 롯데 팬타지움(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9월 24일 대전 위캔센터, 10월 29일 한국체육대, 11월 5일 전북대에서도 진행한다. 선수부모 아카데미는 구글 폼을 통해 회차별 사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체육대학 입시설명회는 체육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체육대학 입시 전문 컨설턴트가 입시 전형에 대해 분석하고 성공적인 입시전략 정보를 공유한다.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는 선수들의 경력 개발을 위한 정보와 인적 교류, 스터디 등 현역 또는 은퇴선수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올림픽데이런 2022' 10월 16일 개최



대한체육회가 국내 유일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올림픽 행사인 '올림픽데이런 2022'를 오는 10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한다. '올림픽데이런 2022'는 전 연령이 참여 가능한 스포츠 행사다. 사전예매는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공식사이트(www.olympicday.co.kr)와 러너를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올림픽데이런 2022'는 '평화를 위한 움직임'(#moveforpeace)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올림픽 운동의 하나다. 스포츠를 통한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축제로 열릴 예정으로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 마라톤(5km/10km) 대회 외에도 올림픽 스포츠 종목 체험, VR 체험이 가능한 스포츠 버스, 올림픽 스타가 참여하는 팬 사인회, 팀코리아 NFT 체험, 특별 게스트와 함께하는 애프터 파티 등을 체육회가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5,0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참가비는 3만 3,000원이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올림픽데이런 공식 노스페이스 티셔츠와 타투 스티커, 스포츠 짐백, 오륜이 새겨진 스포츠 용품 등을 포함한 '올림픽데이런 키트'를 준다.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올림픽데이런 기념 메달'과 IOC 위원장 및 대한체육회장 명의의 참가확인서를 준다. 또한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인 코카콜라, 노스페이스, 네이버, 오콜리, CJ제일제당, BBQ, 폴메이드, 롯데홈쇼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선물과 이벤트가 올림픽데이런 현장 및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2022 SEPTEMBER

대한체육회

민물장어양식수협, 민물장어 전달식 열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앞으로 3년간 매달 장어를 특식으로 먹는다. 대한체육회는 8월 16일 충북 진천에 있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민물장어양식수협과 함께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민물장어 전달식·특식행사'를 열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국가대표 선수단 경기력 향상과 각종 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하며 이번 전달식과 특식행사를 준비했다. 체육회는 “앞으로 3년간 약 2억 원 상당 장어를 매달 100kg씩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유인택 선수촌장을 비롯한 체육회 임직원들과 최정수 민물장어양식수협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정수 상임이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힘이 되고자 민물장어 전달식과 특식행사를 하게 됐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걱정도 많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항상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경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인택 선수촌장도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응원과 장어 보양식 제공으로 선수들이 고된 훈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운동부 폭력적 문화 개선”…대한체육회 등, 인권위 권고 수용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대해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수용 입장을 전했다. 전문운동선수 100명, 운동부 10개 이상을 교육·운영하는 대학교 9곳과 대한체육회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2020년 ‘학교운동부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해 3월 29일 피권고기관들에게 대학 운동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한체육회장은 지난해 7월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선수에 대한 괴롭힘’ 항목을 신설하고, 지난 1월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괴롭힘 피해자의 범위를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등으로 확대했다고 회신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도 폭력적 통제를 예방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배포하고 대학운동부 평가지표에 ‘대학운동부 인권 증진’ 영역을 신설·도입했으며, 2021년 총 116개교, 4,016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년별 인권교육을 시행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폭력적 통제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학스포츠 인권증진사업 예산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스포츠 사회공헌 확산 위한 업무협약



대한체육회는 9월 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국내의 스포츠 사회공헌활동 확산 및 저소득층 스포츠 꿈나무 선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대한적십자사는 스포츠에 재능이 있지만 주위 환경으로 꿈을 펼치기 어려운 스포츠 꿈나무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x누구나 캠페인'을 통해 본격적인 모금과 기부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스포츠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배드민턴 이용대, 탁구 주세혁, 유도 조구함 등이 참석해 각 종목의 꿈나무 장학생들과의 사진 촬영과 대화 시간 등을 가졌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체육회는 10월에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재난구호와 공공의료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자원봉사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기흥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포츠계가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체육인이 국민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도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

2022년 서바이벌 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체육회가 11세 이상 서울시민 가족을 대상으로 2022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56보병사단 금곡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9월 3일과 10월 8일 토요일 총 2회 열린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영화 세트장처럼 조성된 시가지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마일즈 서바이벌, 가상화면 속 실제 도심 환경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VR 영상모의사격,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AED사용법 등)으로 총 3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박원하 회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최첨단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서바이벌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이색적인 여가스포츠를 맘껏 즐겼으면 좋겠다"며, "군부대와의 계속적인 원활한 소통을 통해 앞으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 SEPTEMBER

시도체육회

인천광역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전력점검 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체육회가 9월 5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전력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체육회 대회실에서 개최된 전력점검보고회는 인천시청 및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와 지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예상성적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전력파악 및 대비방안 등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 공모 선정



광주광역시체육회가 지난 6월 스포츠클럽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첫 시행한 '2022년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서 7개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돼 앞으로 3년간 각종 정부 지원사업 국비를 지원

받는 성과를 거뒀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체육시설 및 인적자원 확보', '수준별, 연령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등의 평가지표를 통해 서면평가, 사업계획 평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스포츠클럽들이 공모를 신청했으며 광주는 8개 클럽이 신청했다. 지정스포츠클럽 자격은 3년간 유효하고 운영 실적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 지정스포츠클럽 혜택으로는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체육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광역시체육회는 8월 30일, 대전근현대사전시관(구 충남도청)에서 대전체육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승찬 대전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해 회원종목단체장, 자치구 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협의회, 지도자 및 선수 대표 등 38명이 참석했다. 대전체육 정책간담회는 민선8기 출범에 맞춰 체육정책을 수립하고 공유하여 대전체육 활성화 및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장우 시장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간담회는 민선8기 공약을 기반으로 「대전체육 그랜드플랜」을 수립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심쿵 대전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스포츠로 행복한 대전시민, 전문체육 육성 환경 선진화, 스포츠과학의 메카 대전 구축, 대전체육 운영기반 강화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세우고 스포츠를 통한 노점도시에서 심쿵도시 대전 만들기 등 10개의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시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복 선정



경기도체육회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기도 선수단복을 확정했다. 경기도체육회는 8월 17일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고 제품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심사를 통해 대경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입찰에는 4개의 업체가 참가했으며, 대회가 10월에 열리는 점을 고려해 날씨와 지역, 품질 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제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단복은 심플한 디자인과 우수한 재질, 편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체육회는 향후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최종협상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 발주할 예정이며, 이후 중목별 선수단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우수한 제품이 선정되어 만족스럽다. 경기도체육회는 전국체전 우승을 위해 남은 기간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경기도민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다.

충청북도체육회 정책 자문위원 위촉



충청북도체육회가 8월 19일 충북체육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체육정책 자문위원 회의와 위촉장 수여식을 했다. 이날 윤현우 회장은 도내 대학교수와 유관 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현우 회장은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충북체육의 정책 현안 타당성 연구와 발전 방향을 마련, 시대상에 맞는 충북체육의 미래 방향 제시에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충북체육회 체육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체육 관련 법령 조례 제개정 추진,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른 거점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자문위원 중 김택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은 “스포츠 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운동을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해 체육 사무를 위임 받은 체육회에 정책적 예산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2022 SEPTEMBER

시도체육회

충청남도체육회

충남체고 선수단 특별훈련비 지원



충청남도체육회 김덕호 회장이 8월 31일 충청남도체육고등학교를 찾아 하계 강화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특별훈련비 2,000만 원을 전달했다. 김덕호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선수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선수들이 부상 없이 마지막까지 집중해 종합 6위 달성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양훈 교장은 “남은 기간 한 점이라도 더 획득할 수 있도록 특별훈련비를 통해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울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체육회

인권친화적인 체육 환경 조성 앞장



전라북도체육회는 8월 18일 제1차 체육인 인권위원회를 열고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수립, 인권보호 강화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 도내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게 된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전문가와 법률가,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관계자, 선수 출신 등 전문지식이 있는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이 맡게 됐다. 장영달 위원장은 “사명감이 막중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인식 개선을 통해 깨끗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강선 회장은 “폭행과 성범죄, 폭언, 갑질 등 스포츠4대악을 비롯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인권친화적인 체육환경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해달라”고 위원회의 적극 참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회 개최



경상북도체육회는 8월 30일 경북체육중고등학교 1층 세미나실에서 40명의 종목단체 전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체육대회 등 올 반기 각종 주요추진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체육회는 올 하반기 중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9월/경산시)·제32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10월/포항시) 등 도행사와 오는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전 등 굵직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김하영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도체육회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5월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며 “1개월여 남은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도민의 자긍심을 더 높이고, 신뢰받는 경북체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경상남도체육회

산청서 ‘청소년 스포츠안전교실’ 열어



경상남도체육회가 8월 11~12일과 18~19일 등 4차례에 걸쳐 산청군 일원에서 ‘2022 경남체육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스포츠안전교실’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대한체육회 협력 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이 주최하고 경상남도체육회가 주관한 것으로, 이번 안전교실은 도내 청소년 320여 명을 대상으로 스포츠안전에 대한 이론과 래프팅 등 체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스포츠안전문화 정착과 스포츠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안전습관을 기르기 위해 마련했다.

김오영 경상남도체육회장은 “도내 청소년들이 심폐소생술 등 스포츠안전교육과 래프팅,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포츠안전을 생활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원종목단체

대한씨름협회

몽골에 시범단 파견…친선 씨름대회 참가



대한씨름협회가 ‘한국-몽골 친선 씨름대회’를 위해 몽골에 씨름단을 파견했다. 남동하 한림대 감독과 최석이 거제시청 감독, 선수 14명 등으로 구성된 시범단은 8월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회가 열리는 몽골 울란바토르로 출국했다. 이번 친선 대회 참가는 몽골씨름협회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양국 선수들은 8월 20일에 경기를 펼쳤다.

한국에서는 남자부 한상진, 심건용(이상 한림대), 이병용(단국대), 김유성(영남대), 조대진(중원대), 한선규(목원대), 송대웅(호원대), 서지덕(용인대) 등 8명과 여자부 이연우(화성시청), 최다혜, 이다현(이상 거제시청), 엄하진(구례군청), 양윤서, 임수정(이상 영동군청) 등 6명이 참가했다.

대한핸드볼협회

2022 코리아 비치핸드볼 페스티벌 개최



2022 SEPTEMBER

회원종목단체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대한핸드볼협회가 베트남, 필리핀 국가대표를 초청해 3개국 친선대회 및 합동훈련으로 진행되는 '2022 코리아 비치 핸드볼 페스티벌'이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양 낙산해수욕장에 특설된 비치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렸다. 2022 코리아 비치핸드볼 페스티벌은 27일과 28일에 국내 클럽 참가팀 대상 이벤트를 개최하고, 28일부터 30일까지는 베트남, 필리핀 국가대표를 초청하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겨뤘다. 31일에는 3개국 합동훈련이 열렸으며, 국제심판과 필리핀 지도자가 진행하는 교육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일정이 마무리 됐다. 이번 2022 코리아 비치핸드볼 페스티벌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A/B팀으로 두 팀을 구성하여 베트남, 필리핀 국가대표팀과 경기를 치르게 됐다. 한편 대한핸드볼협회는 그동안 비치핸드볼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위해 비치핸드볼 TF팀을 구성해 2019년 8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비치핸드볼 테스트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5월에는 베트남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게임에 파견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제1회 백호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성료



청주 세광중학교(교장 김선진) 야구부가 제1회 백호기 전국 중학야구대회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세광중 야구부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와 강원도 횡성군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백호기 전국 중학야구대회' 태기왕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횡성 베이스볼파크에서 개최됐다. 백호기는 16세 이하 팀들의 대회 개최수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우수 유소년 학생 선수 육성을 위

해 지난해 마련됐지만 코로나19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올해 첫해를 맞았다.

백호기 전국 중학야구대회는 총 90여 개 팀이 참가해 태기왕리그와 삼일공원리그로 나뉘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세광중은 64강 경기에서 대회 최고 전력팀인 대구 경상중과 치열한 난타전 끝에 6대 4로 승리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32강 경기에서 충남 계룡퓨처스를 17대 1 콜드게임 승으로 이겼다. 16강 경기에서는 올해 전국소년체전 준우승팀인 광주 충장중을 만나 고전을 예상했으나 7대 0 콜드게임 승으로 연승을 이어갔다. 세광중은 8강에서 만난 세종인터미들 주니어팀을 8대 1로 꺾고 3연속 콜드게임 승으로 기세를 올렸다. 4강전은 수도권의 강호 소재중을 맞이하여 몇 차례의 위기가 있었으나 연승의 기세를 몰아 3대 1로 승리하고 결승에 올라 강팀 광주 동성중을 맞이해 8회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5대 4로 승리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한민국농구협회

제22회 문체부장관배 전국 생활체육농구대회 개최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오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제2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생활체육농구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대한민국농구협회가 주최하고 충청북도농구협회, 제천시농구협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제천시가 후원한다. 국민건강증진 및 전국 동호인의 화합과 국민 참여복지 실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다. 본 대회는 2019년 제천시에서 개최된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간 개최하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3년 만에 다시 제천시에서 유치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회원종목단체

경기력을 점검할 수 있는 대회가 됐다. 17개 사도 대표들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대회에 시범종목으로 50대부가 신설된다. 농구종목 특성상 젊은층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었으나, 농구를 즐기는 젊은 층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50대 농구동호인들이 될 수 있는 대회가 없어 50대 농구 동호인을 위한 종목을 신설하게 됐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태국·캄보디아 등 4개국 선수단 초청 훈련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는 9월 1일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선수단을 초청해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과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초청 훈련은 9월 14일까지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진행됐으며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등 4개국 선수단 28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2주간 훈련 후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NH농협은행 인천코리아컵 국제대회에 출전한다.

이 초청 훈련 사업은 2012년 시작됐으며 올해 참가하는 4개국 외에 필리핀,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등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지원으로 운영된다.

대한카누연맹

카누 간판 조광희, 국내 최초 국제카누연맹 슈퍼컵 출전



한국 카누의 간판 조광희(29·울산광역시청)가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제카누연맹(ICF) 스프린트 슈퍼컵에 초청받았다. 대한카누연맹은 8월 23일 “ICF 스프린트 슈퍼컵에 초청된 조광희가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대회가 열리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스프린트 슈퍼컵은 세계적으로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ICF가 자체 선발, 초청해 진행하는 대회다. 선발된 선수들은 26, 27일 이틀간 남녀 카약·카누 1인승 350m 4개 부문으로 출전해 경주를 펼쳤다. 조광희는 이 가운데 남자 카약 부문에 초청받았다.

조광희는 첫 올림픽 무대였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선 남자 카약 1인승 200m와 2인승 200m에서 모두 준결승 무대를 밟았다. 국내 카누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 출전 티켓을 땀다. 아시아에서는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자 카약 1인승 200m로 출전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카누 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오늘부터 갯생살기 시작합니다

갯생은 GOD(신)+人生(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대단하고 좋은 것,
훌륭한 것을 말할 때 접두어처럼 사용되는 갯을 인생에 붙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으로 갯생살기 프로젝트를 실천해보세요!



* 이 캠페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달리기 좋은 가을

푸른 하늘, 시원한 가을바람을 누리며 달려보세요
더 건강하고 꾸준히 지속가능한 힘 **스포츠7330**



※ 이 제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